

'2019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 MBC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19.4.30	대전MBC 대회의실	8	7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 이용원 위원, 양선희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신원식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최영규 제작부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미디어전략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2	-	-	7	-	7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7	-	-	7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5 건	9 건	
교양	아침이 좋다 문화나들이 코너 다양한 소재 방영 요청	지역 예술인과 청년 작가 소개 (4/19), 스프링 페스티벌의 다양한 문화 공연 소개 (4/12) <19.4월 조 치>	'19.3월
교양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 : 지역의 청소년을 소재로	서구 관저동 어린이 도서관 (4/24), 월평동 동지의 청년들 (4/3) <19.4월 조치>	'19.3월
보도	미세먼지에 대한 보도 요청	현대제철, 미세먼지 저감장치 제기능 못해(4/30), 7개 시도 중국발 미세먼 지 공동 연구(4/24), <19.4월 조치>	'19.3월
보도	내실 있는 축제 정보 제공	성웅 이순신 축제, 동상 친수식 (4/20), 가족이 즐기는 제철 실치, 당 진 실치축제 (4/26) <19.4월 조치>	'19.3월
보도	LNG 발전소 관련 심층보도 요청	노정렬의 시시각각 대전의 LNG 발전 소 (4/1) <19.4월 조치>	'19.3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성명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대전 MBC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 운영실적	인터넷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부위원장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위원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8.05.01~ 19.04.30
위원	정대식	금성백조주택 사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8.05.01~ 19.04.30
위원	이용원	월간 토마토 편집인	(사)문화유산올림	문화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대전YMCA	소비자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변 동 사 항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1. 교양 :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p> <p>잘 챙겨서 보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청년의 활동, 잘 담았다. 청년층 외에도 다른 계층도 담아주길 바란다.</p> <p>손수레 청년농부의 경우 대전에서 6년 정도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으로 반갑게 잘 보았다. 도시농업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며, 월평동지, 마을 돌봄의 이야기 주제 선정이 좋았다. (김종남 위원)</p> <p>짧은 시간이지만, 와닿는 부분이 많았다. 보슈, 청춘 나들목 등은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 청소년 문제를 강화할 필요 있다는 의견이며,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재가 좋을 듯 (청소년도 시민이다.) (김종남 위원)</p>	<p>가능하면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 관련 아이템(노노케어), 청소년 관련 아이템(청소년의회) 등에 대한 제작이 진행되고 있으며 방송될 예정입니다.</p>	○		
교양	<p>2. 교양 : 크리에이터 성장기 - 독전</p> <p>재미있게 보았다. 이 방송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김종남 위원)</p> <p>지상파에서 1인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는 것은 신선한 시도라는 생각이다. 공무원 크리에이터는 신선하게 느껴진다. 대전시가 4차 산업의 대표 도시라면, 방송계에서 유튜버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대전에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는 크리에이터 들이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대식 위원)</p> <p>청소년 직업체험 진행하는데, 크리에이터 관심이 인기가 좋아서, 관심이 많이 끌렸다. 전반적으로 신선하게 느껴졌으나, 첫회는 조금 산만했고, 2회부터는 진행자가 정리를 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보였다. 전체적으로 야외와 실내가 교차하는 것이 어수선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다. 먹방 중심의 유튜버는 지양하고, 신선한 인물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한다. (권부남 위원)</p>	<p>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초반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프로그램의 적응 과정이라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먹방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 연령,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점차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중에 있으며, 보다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3. 보도 : 노정렬의 시시각각</p> <p>유성5일장에 대한 토론, 장대지구 개발에도 5일장은 지키겠다는 요지. 주제도 관심사였지만, 토론자들도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보기 좋았다. 유성5일장을 지키는 방식의 차이. 토론의 핵심은 행정처리 절차 과정에서 흔들린 것이 있었다. 재개발 승인 절차를 두고 양측의 의견차이. 보다 책임 있는 행정기관에서 나와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상인대표가 실상을 보다 세밀히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것.</p> <p>정가이슈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유죄시 문제, 유력인사 총선 출마, 세월호 망언에 대한 양측의 주장 등이 방송되었는데, 방송 시점에서, 시제가 맞지 않는 부분 개선되어야. (송길현 위원)</p> <p>유성5일장에 대해서 잘 설명. 향후 진행 부분에 대한 방송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종남 위원)</p> <p>도시정비과장, 시민연대의 토론에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양측이 방송 전 사전에 만나 사전 조율이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p> <p>방송은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자리. 시청과 시민단체의 의견만 부각되었다. 서로 간극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가 더 담겼으면 한다. 원도심 관련해서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논의된 것은 대전만을 이야기했는데, 전국 단위의 시각도 필요하다. (함진호 위원)</p>	<p>시시각각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첨예한 이슈들을 우선적으로 토론 주제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격렬한 이견으로, 입장차가 극명한 이슈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통해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지점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론된 이슈라도 계속적으로 추적해가도록 하겠습니다.</p>	○			
<p>4. 보도 : 뉴스에 대한 우려</p> <p>보도에 대한 우려 몇 가지를 전달하겠다.</p> <p>대전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대한 보도에서 대전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되어 아쉬움이 많았다. 매봉지구 특례사업과 관련한</p>	<p>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비롯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대전MBC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에 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시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가 그대로 반영되어 방송되었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보도되지 않아, 균형 잡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느낀다.</p> <p>노동문제와 관련해서,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의 사건보도 등에서 노동청의 입장만을 반영 하였고, 당진 현대제철 청산가스 유출의 기준치 이상의 유출에도, 보건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부족했다.</p> <p>서해안 내포철도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 후 보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며, 이승만 동상 철거 부분의 보도에서 MBC가 현장 취재가 없어 아쉬웠다. (양홍모 위원)</p>	<p>지 않고 객관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p>보도</p>	<p>5. 보도 : 대전 야구장 건설</p> <p>야구장 건설과 관련, 평가점수 집계표의 공개 관련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짚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김중남 위원)</p>	<p>대전 야구장 신축은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일부 구의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선정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됐던 사안으로, 시민단체들도 허태정 대전시장이 ‘행정적 절차를 통해 요청이 온다면 평가 점수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도 정보 공개를 꺼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대전MBC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대전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고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자 대전시는 구별 평가표를 공개했습니다.</p>	○		
<p>보도</p>	<p>6. 보도 : 무상교육</p> <p>14일 뉴스데스크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뉴스. 교육청과 정부, 어디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 하는 부분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든</p>	<p>앞으로도 교육 분야를 비롯한 각종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 소요나 조달 문제에 관해 지방재정과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 등을 입체</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다. 학부모는 반기는 입장이지만.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할지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되고 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함진호 위원)</p> <p>LNG 발전 관련,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 필요, 노정렬의 시시각각에서 다루면 좋을 듯 (양선희 위원)</p>	<p>적으로 분석해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p>			
<p>보도</p>	<p>7. 보도 : 당신이 뉴스입니다.</p> <p>당신이 뉴스입니다. 시청자 제보. 갑천의 악취부분은 시청자 제보 뉴스라서 신선했다. 제보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 (정대식 위원)</p> <p>당신이 뉴스입니다. 색다른 시도, 제보자와 뉴스 팀의 협업이 좋았다. (신성철 위원장)</p>	<p>대전MBC 보도국은 ‘작은 제보가 큰 뉴스를 만든다’는 모토 아래 시청자 제보와 교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뉴스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청 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채널을 개설해 제보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도 제보 창구를 확대했습니다. 다양한 포맷을 개발해 방송의 주인공 시청자의 뉴스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p> <p>당신뉴스는 와이드 뉴스데스크 신설 이후 새롭게 시도한 뉴스 포맷으로 시청자들이 결국 지역 뉴스의 본질이라는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제보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가려운 곳, 소외된 곳, 어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원한 뉴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